

후 기

2007년 가을 인도의 다람살라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깨어있고자 합니다

| 달마 |

인도에서 3주간 행해졌던 구르지에프의 신성무 코스에 참가한 후기입니다(편집자 주). ———



여정

우리가 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깊은 밤이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배웅을 나온 사람들과 마중을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후덥지근한 델리의 밤, 민감하게 후각을 자극하는 인도의 향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신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인도의 향냄새, 마침내 고향을 찾아온 나그네가 느꼈음직한 기쁨과 약간의 설렘으로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3주간의 구르지예프 무브먼트 코스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23명으로 한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몰도비아,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인도, 스위스 등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다. 코스를 이끌어간 아미요는 프랑스, 체탄은 러시아 출신이었다.

코스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자신의 나라에서 클래스나 워크샵 형식으로 무브먼트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전세계 이곳저곳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구르지예프 무브먼트 코스를 찾아서 해마다 한 차례 혹은 그 이상 짐을 꾸릴 정도로 무브먼트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곳으로 이르는 순 여행을 선택하도록 한 그 힘이 무엇일까? 이미 내가 스스로에게 몇 차 물어본 적 있는 이 의문이 그들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눈을 볼 때마다, 전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의 동작을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고개를 들곤 했다.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나 역시 지금, 여기에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다.

변형의 춤, 구르지에프 무브먼트. 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전한 ‘자기기억’,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깨어있는 의식의 오체투지로 이끌어온 힘이 아니겠는가!

일요일 저녁, 우리는 명상홀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다. 한 사람씩 명상홀에 입장하자 문가에 서있던 두 명의 교사가 우리들을 맞이해주었다. 그들은 티벳의 전통에 따라서 흰색 실크 솔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에 둘러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초를 중앙에 둔 채 원형으로 자리에 앉았다. 가운데 놓인 초는 우리들 각자가 이곳까지 오게 된 ‘내적인 열망’을 상징했다. 무엇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도록 만들었는가? 어떠한 내적인 열망이 세상의 반대편에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었는가?

모든 사람들 앞에는 작은 초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잠시 후, 아미요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녀의 앞에 놓여 있던 작은 초를 들고 중앙에 놓여 있는 거대한 초를 향해서 걸어갔다. 그곳에서 작은 초에 불을 붙인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더니 자신의 촛불을 기울여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작은 초에 불을 밝혀 주었다. 그런 식으로 촛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초를 밝히기 시작했다. 잠시 후 모든 사람의 쪽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본 아미요가 우리를 이곳까지 오도록 만든 깊은 내적 열망에 대해서 기억해 보라고 말했다.

나를 이곳까지 오도록 만든 내적 열망은 무엇인가?

잠시 후, 한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싶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깨어있고자 합니다.” 하는 식으로.

23명이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나누고 난 뒤, 우리는 목에 걸고 있던 솔의 양끝을 옆 사람의 그것과 묶었다. 홀로 있을 때는 두 개의 끝을 가진 하나의 솔이었던 것이 끝과 끝을 묶자 완전체인 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른손으로 솔을 잡은 채 ‘옴 서클’을 추기 시작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추는 춤인 ‘옴 서클’, 스물다섯 개의 오른손이 안쪽에서 원을 그리자 열망의 끈도 함께 안쪽에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스물다섯 개의 오른손이 바깥쪽에서 원을 완성하자 열망의 끈도 완성의 원을 그렸다.

고요가 찾아 들고, 바깥에서 타고 있는 촛불만큼 밝은 의식의 불빛이 내면에서 환하게 피어올랐다. 안과 밖이 온통 밝은 빛… 빛 투성이었다.

구르지에프 무브먼트는 ‘신성무(Sacred Dance)’라고도 불린다. 무브먼트는 구르지에프가 여행을 하면서 수집한 고대의 춤에 기를 두고 있다. 실제로 어떤 무브먼트는 티벳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수집된 것들도 있다. 무브먼트는 인간의 삶과 변형의 비밀에 관한 원형(archetypes)을 담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무브먼트를 익히고 나면, 춤을 추는 사람은 물론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까지 무브먼트의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구르지에프 무브먼트는 다양한 인간의 경험을 담고 있다. 지극히 남성적이고 강렬한 더비쉬 춤에서부터 지극히 부드러우며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기도 춤까지, 삶의 스펙트럼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대개 무브먼트 중에는 오른팔과 왼팔의 움직임이 다르고, 다리와 머리가 서로 다른 리듬이나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춤들이 많다.

이번 코스는 무브먼트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Advanced Teacher Training’이었다. 코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미 몇 년 동안 무브먼트를 익혔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인 까닭에 거의 30분마다 새로운 춤을 익혔다고 말할 정도로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낯설지만 한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태양을 향한 찬양’이라거나 ‘피타고라스 2번’,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네 명의 선지자들’ 혹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어린 티벳인의 서있는 모습’ 등은 작은 움직임 속에 큰 침묵을 담고 있는 춤들이었다.

또한, 구르지에프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익혀야만 한다고 말했던 의무, 즉 여러 가지 ‘오블리거토리(Obligatory)’는 무브먼트의 알파벳을 익히는 데 수적인 춤이었다. 프랑스 파리의 근교에 있는 폰틴블레에 세워졌던 구르지에프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그룹별로 나뉘어서 무브먼트를 익히곤 했다.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룹을 지은 다음, 그들은 더 높은 단계로 옮겨가기 전에 반드시 ‘Obligatory’를 익혀야만 했다.

‘Obligatory’는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의 리듬이 서로 다르다. 팔 동작과 다리 그리고 머리 동작을 따로 익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주로 메트로놈을 사용하거나 후반부에 음악을 사용한다. 팔 동작을 익히고 나면 이제 팔과 다리 혹은 팔과 다리와 머리 하는 식으로 다른



요소들을 한데 모아서 춤을 춘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을 모두 합쳐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깨어있음과 우리들 자신에 대한 각성이 일상적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상승되어야만 가능하다.

무브먼트 중에는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번호에 의해서 불리는 춤들도 많다. 예컨대 ‘무브먼트 1번’에서 ‘무브먼트 39번’에 이르는 춤들이 그러하다. 이 무브먼트들은 구르지에프가 가르침을 퍼던 후반부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무브먼트에 쓰이는 음악은 피아노로 연주되며, 구르지에프의 지시에 따라 토마스 드 하트만이 작곡, 연주했다. 최근에는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된 새로운 버전의 춤곡들도 많은데 시연(performance)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무브먼트는 정지(stillness)에서 시작된다. 동작이 시작되기 전의 동작은 완전한 정지와 균형이다.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눈이 위를 바라보고 있을 경우, 우리가 그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과거의 기억 속을 헤집고 다니게 된다. 눈이 정면을 향하게 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의지와 의도가 바로 몸의 움직임과 무브먼트를 시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원동력을 창조한다. 무브먼트가 끝나면 즉각 정지 상태로 되 돌아온다. 춤을 추는 동안, 우리는 닳을 내리듯 의식을 몸의 한 지점(이것을 흔히 앵커링 포인트(anchoring point)라고 표현한다)에 머물게 한다. 이 지점들은 무브먼트를 하는데 중요한 곳으로 예컨대 척추나 골반, 어깨의 관절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센터인 단전이나 가슴 센터, 제 3의 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무브먼트를 하는데 본질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기기억(self-remembrance)’이다. 즉, 우리가 의식의 반절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반을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대상에 두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무브먼트는 구르지에프의 가르침, 그 본질을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구르지에프 가르침의 정수’이다.

매일 오후, 우리는 구르지에프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몇 시간을 할애했다. 구르지에프의 가르침은 우주적 가르침의 단편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고대의 지혜를 비전적 전통에 의해 전달해왔다. 예컨대 그의 가르침은 인류의 영성 심리의 리얼리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단계의 이해로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우주의 기능과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다.

에니어그램은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이 암호화되어 있는 상징으로, 다양한 에니어그램 측면 중의 하나가 바로 성격 유형이다. 우리는 무브먼트를 가르치는 사람과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의 연관성 속에서 각 유형별 특성을 다루어 보았다.

또한, ‘자기기억’과 ‘제 4의 길’을 통해 무브먼트에 대한 한 층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도 했다.

3주간의 코스가 끝나기 전날인 금요일 저녁, 우리는 인도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과 명상센터의 운영진 그리고 그들의 게스트들을 위한 ‘시연’을 가졌다.

오렌지색 상의와 검정색 바지를 입은 스물다섯 명의 우리는 큰 원을 그린 채 자리에 앉아서 내면의 침묵 속으로 침잠했다. 무브먼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스물다섯 개의 침묵이 하나의 완전체인 원 속에서 하나의 침묵이 되어가는 동안, 게스트들이 한 사람씩 침묵 속에서 명상홀로 들어왔다.

춤을 추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일반적인 공연과 달리 무브먼트 시연은 하나의 침묵을 공유하게 된다. 무브먼트 시연은 행위를 하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이 무브먼트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내적인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명상이다. 그런 까닭에 구르지에프는 무브먼트를 ‘객관적인 예술’이라고 일컬었다.

잠시 후, 우리들은 조용히 눈을 뜬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선을 정면에 둔 채 첫 번째 춤을 추기 위한 자리를 찾아 고요히 움직이는 동안, 방안을 가득 채운 것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닌 침묵의 물결이었다.

1번 Obligatory가 시작되었다. 정지(stillness) 그리고 동작 다시 정지 그리고 동작. 모든 춤이 그러하듯 이 춤은 동작과 동작 사이의 정지, 전적인 균형이 중요시 되는 춤이다. 다섯 개의 손가락 사이에 놓인 다섯 개의 빈 공간 혹은 음과 음 사이의 침묵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티벳의 신기로 장수를 보고 만들어진 춤인 ‘신발 만드는 사람’을 끝으로 시연이 끝났다. 객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무브먼트가 끝나고 난 후에도 잠깐 동안 침묵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듯 했다.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기침소리조차 내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하나의 우주적 의식만이 그 공간에 가득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음에 또 러시아 혹은 프랑스, 스페인에서 또는 인도의 어딘가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23명의 춤꾼들은 저마다 제 갈 길을 재촉했다.


택시로 3시간을 달린 끝에 우리는 다람살라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파탄콧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밤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델리행 야간열차를 타고 7시간 30분 후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 델리 중앙역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을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사람들의

물결에 휩싸인 채 굳이 걸음을 떼어놓지 않아도 출구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혼잡한 역사는 생생한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푸나로 향했다.

1년 반 만에 찾아온 푸나의 곳곳에서 성장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는 생기로 가득했고, 높은 건물들과 여러 편의시설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3주간의 강렬한 여정 뒤에 푸나보다 더 완벽한 휴식터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인도 친구 데바프리야의 말처럼 오래간만에 돌아온 푸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여행자들을 맞아주었다.

무성한 자연과 활기로 가득한 오쇼 명상 리조트에서 보낸 6일간은 다람살라의 경험을 숙성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면에 반듯한 초석 하나를 이루어주었다.

다시 길 위로 나섰다. 서울에서 델리로, 델리에서 다람살라 그리고 푸나. 푸나에서 봄베이로, 봄베이에서 싱가포르 그리고 다시 인천을 거쳐 지금 이곳 남산 밑자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길을 걸어왔다.

마치 들판에 가득한 장미꽃 향기가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묶이지 않듯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침묵의 향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무브먼트의 향기가 지금 이 순간 나를 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나에게서 그들에게로, 우리에게로.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